

사슴의 帝王切開手術

鄭 鎮 華 *

지난 6월 26일 오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서 급한 왕진요청을 받았다. 사연은 妊娠사슴이 2日前부터 分娩陣痛이 시작되었으나 難産이라는 것이어서 稟告를 들으니 經産사슴인데 어제부터는 陣痛도 없고 지쳐 엎드려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로 미루어보아 火急한 狀況이라 만일에 對備 手術器具를 点檢하여 서둘러서 택시로 一時間 二十分후 사창리에서 좀 떨어진 산기슭에 자리한 한적한 사슴목장에 다달으니 午後 三時였다. 사슴우리엔 다른 6마리의 꽃사슴이 外來客인 나를 초롱 초롱한 눈으로 凝視하면서 이리 저리 물리고 있었으며 妊娠畜은 한구석에 犬座姿勢로 主人과 나의 接近에도 좀체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野生동물인 사슴이 이토록 無感覺함을 볼 때 얼마나 苦痛이 甚하고 虛脫하면 저럴까 애처로운 마음이 앞섰으며 우선 切角場에 誘引토록 했으나 아픈몸에 無理한 자극을 줄것같아 살며시 接近 잡아보도록 했으나 역시 餘力이 있어서인지 10餘步 자리를 옮기곤 또 엎드리는 것이다. 2~3회 되풀이하다 나이론푸대로 軀體를 감싸며 前後肢를 잡아 保定하는데 成功, 患畜의 心音과 呼吸音을 체크한 다음 右側復部를 觸診하여보니 胎兒는 觸知되나 胎動이 없어 이미 死胎임을 確診할 수 있었다. 檢溫하여보니 37°C로 (正常38.5°C)로 낮아 體力補強을 위해 따뜻한 물에 Aminosteril 100cc를 IV한 다음 얼마후 檢溫하니 37.4°C로 올

라 外陰部를 洗滌後 産道에 손끝을 넣어보니 頸管擴張不全, 혹은 産道가 이미 收縮期에 접어든 것 같았다. 일차로 oxytoxin 3cc를 IM하고 기다려 보니 無陣痛이었으며 40分후 재차 oxytoxin 3cc IM한후 기다려 産道에 손끝을 挿入하니 발끝이 닿았다. 그러나 産道狹窄으로 死胎를 牽引摘出함은 不可함이 判斷되어 畜主에게 最終方法이 帝王切開手術밖에 없으나 患畜의 体温이 낮고 脫水로 手術中の stress를 감당할수 있을런지 凝門이며 手術後 回復經過가 걱정이라고 說明하니 失敗해도 좋으니 試驗case로 手術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그때 時間은 午後 6時 30分 野外사슴장안에서 더우기 助手도 없이 大手術을 하기란 솔직히 勇氣가 나지 않았으나 한 生命의 生死를 눈앞에 두고 돌아설 수 없는 착잡한 心情이었으며 最善을 다하여 보자고 다짐하고 手術準備를 서둘렀다.

1. 手術準備: 手術台를 急造하여 이웃농가에서 電線을 연결케하고 術野는 右側肥部를 除毛한 후 術野를 強沃度로 닦아내고 alcohol로 洗滌하였다.

2. 麻醉: 사슴체중(40K 정도) Rumpun 3cc IM하고 切開部位는 procaine 2%로 浸潤마취하였다.

3. 手術過程: 切開線은 右側謙部(腰椎 下方 4cm) 中央에서 아래로 垂直으로 15cm 皮膚切開後 皮下織 外科, 內斜腹筋 腹膜의 순서로 하고

* 春川서울가축병원

止血은 一般的인 요령으로 한바 아쁠사 쪽바가지 크기의 膀胱이(300cc貯留됨) 먼저 밀려 나오지 않는가, 50cc 주사기로 5~6 회 뽑아 排尿하고 밀어넣은 다음 子宮體를 찾아 血管分布가 적은 곳을 택하여 15cm 정도 切開, 死胎를 摘出하여보니 過胎兒였으며 死亡時間經過로 胎盤이 變質흐느적거려 後產物까지 除去後 따뜻이 데운 1ℓ saline에 SM10gm을 타서 子宮內洗滌後 sulfa urea bolus 1정을 넣고 腹腔內도 SM첨가 saline액으로 수시 點注하면서 子宮切開創은 continuous sutures로 하고 다시 드문 드문 Lembert sutures를 하였으며 다음 腹膜 筋肉層 皮膚縫합을 끝내니 2時間余소요되었으며 縫合部位에 stol5를 spray하고 Hosta, 400萬 1M 하고 檢溫하니 36°C라 다시 데운 5% Dex.를 300cc 1V 하고 나니 밤 9時40分이었다. 盡人事在天命이라 最善을 다하였으며 手術畜의 體力如何에 回生如何가 달렸음을 畜主에게 說明, 지친몸으로 목장을 떠나 歸家하니 다음날 새벽 1時였다. 3일후 畜主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經過가 좋아 다음날 주사코저했으나 접근치 못하게 하여 抗生劑를 못주었으며 다른사슴과 어울려 사료도 잘먹고 鼻鏡도 濕潤하여 뛰어다닌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갑기 이를데 없었으며 사슴帝王切開手術은 開業 20余年만에 처음인지라 가벼운 흥분과 함께 보람을 느꼈다. 사슴의 難産을 가끔 接하나 犬動物과는 달라 產道의 손목 進入이 어렵고 牽引 혹은 帝王은 症狀에 따라 다음 事項을 考慮 術者의 判斷에 따라야하며 骨盤

狹窄에 의한 重度의 難産에서는 帝王을 권장하고 싶다.

첫째 頭位에서 前肢와 同時에 胎兒머리가 骨盤腔으로 進入못할때, 둘째 尾位에서 胎兒의 骨盤이 母體骨盤入口 보다 클때는 帝王切開手術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產道狹窄에서 胎兒의 일부가 보인다고 無理한 牽引으로 胎兒의 死亡과 母畜의 骨盤 및 頸管의 甚한 損傷을 주어 危險을 招來하는 境遇를 볼 수 있다.

사슴사육자들은 野生동물인 사슴은 無病한 動物로 藥物治療가 필요없다며 難産에도 수의사의 助産없이 위와 같은 無理한 方法으로 損失을 보고 있으며 사슴이 농畜생산목적으로 加畜化되어감에 따라 좁은 우리에서 농후사료위주의 사육과 특히 겨울철 조사료 및 광물질 비타민부족등으로 첫째 難産, 둘째 消化不良症, 셋째 皮膚病이 자주 발생함을 발견하였으며 臨床수의사들이 사슴疾病에 대하여 많은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經驗에 의하면 尾位에서 助産牽引摘出後 서둘러 口腔 및 鼻腔에 誤入된 羊水를 時急히 人工呼吸器로 吸出하여야 하며 尾位에서 흔히 窒息死을 招來하며 胎兒助産時 消毒藥劑를 절대로 新生사슴에 接觸치않도록 하여야 한다. 母畜의 嗅覺이 銳敏하여 아기사슴을 돌보지 않고 授乳를 拒否하는 境遇도 있으며 難産時 助産stress로 授乳를 拒否하는 경우도 있어 速히 분유로 人工哺乳(1일 4~5회 소량씩)하여 飼育토록 하여야한다.